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10월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 참 석 자

박중기	이용자	이애순	윤희채	유경선	허용의	박근미	안윤환	이옥자	김영찬
		X			X	X		X	
신지현	김인숙	김성화	권영태	고성봉	최철중	홍현표	심상원	이인동	김유환
			X		X	X			X
김대영								참석자	참석률
								13명	61.9%

참관: 이상호(사무행정실 총무) / 기록: 채수진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2. 이사장 인사말
3. 보고 : 채수진 보고함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년 09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9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9/3	7296	이원행	601103-1	안성시 금광면
2	9/8	7299	김규희	-	안성시 고삼면
3	9/9	20798	김미숙	670715-2	안성시 공도읍
4	9/9	20798	유희석	910124-1	안성시 공도읍
5	9/9	20798	유희정	930226-2	안성시 공도읍
6	9/11	7300	김민경	951111-2	안성시 대덕면
7	9/11	7300	김동균	981026-1	안성시 대덕면
8	9/11	7301	정부용	670807-1	안성시 공도읍
9	9/11	7302	김은미	830411-2	안성시 대덕면
10	9/11	7303	박철원	521222-1	안성시 대덕면

11	9/11	7304	고아라	880614-2	안성시 공도읍
12	9/15	20802	구자문	651217-1	안성시 공도읍
13	9/15	20802	구찬미	961222-2	안성시 공도읍
14	9/15	20802	구찬희	020219-4	안성시 공도읍
15	9/15	20802	정철윤	751002-1	안성시 공도읍
16	9/15	20802	정유정	021115-4	안성시 공도읍
17	9/16	7305	장용훈	360320-1	안성시 2동 석정
18	9/22	20804	차상원	560130-1	안성시 공도읍
19	9/22	20804	차지석	860815-1	안성시 공도읍
20	9/24	7306	송지은	811204-2	안성시 대덕면
21	9/24	7306	신호림	071005-4	안성시 대덕면
22	9/24	7306	신지후	100324-3	안성시 대덕면
23	9/24	7306	신지훈	170527-3	안성시 대덕면
24	9/25	7307	안설아	840724-2	안성시 3동 금석
25	9/25	7307	송서울	120719-4	안성시 3동 금석
26	9/25	7308	모재석	730715-1	안성시 공도읍
27	9/25	7308	모하은	041108-4	안성시 공도읍
28	9/25	7308	모하원	060324-3	안성시 공도읍
29	9/25	7308	모하윤	151015-3	안성시 공도읍
30	9/25	7308	박종호	441126-1	안성시 공도읍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안 보고의 건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2021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첨된 사업계획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별도의 2021년도 사업계획 안을 참고.

[논의사항]

<건강마을위원회>

- 해바라기 모임을 하는데 내년에 이사를 하면 주간보호센터가 생기는데 주간보호센터와 해바라기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와 해바라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내년에 주간보호센터 뒤에서 함께 한다고 예산을 잡은것 같다. 해바라기 사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6월이나 7월까지 하되 지금 해바라기에 계신 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 포함시켜서 가는 걸로 알고 있다.
- 계획에는 해바라기 프로그램이 12월까지 잡혀있어서 여쭙봤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봤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이사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 그럼 주간보호센터 책임자는 새로 모시는 것인가?
- 지금 아직 건물을 짓기 전이라 아직 모집하지는 않고, 구상 중에 있다.
- 우리가 추가출자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점 몇 프로의 이자로 쓰는데 그거보다 작은 2%대로 되돌려주

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무님이 그건 조합법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금융업무와 관련해 작은 월 하나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그쪽으로 돈을 모으고 우리 조합은 거기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 양쪽이 이득이 아닌가. 그것도 안되면 어쩔 수가 없는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질문드리는 것이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누구나 출자도 하고 싶고 이자도 받고 싶어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우리는 조금 더 싼 돈으로 출자금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그것은 법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출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 그게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 검토 후 답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제시한 조합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

<인사위원회>

- 질문은 아닌데 어려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자활센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물론 본인이 돈을 벌어서 자립을 시키는 기관이라 도움이 되지 않아 민폐만 끼치는 것 같지만 자활센터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장기근속자에 한해서는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 8월까지 10주년이 되었는데 행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 내년 4월 행사 때 자활에 10년 근속자가 1명이 있는데 후년에는 실무자와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는데 그다음 해에는 1명이 더 있고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자활도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이사장님 표창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극이 되고 실무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 다음 달 인사위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하고 장기근속 수상을 자활직원도 포함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2차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다.

<3동 운영위원회>

-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전 이사장님으로 되어있는데 안 바뀔 이유를 듣고 싶다.
-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꾸지 못한 부분이다. 교육원 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변경 하겠다.
-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지 예산안을 보면 수입이 1억5천8백8십인데 지출은 천만 원 정도인데 그럴다면 수익이 1억5천4백이 남는다는 것인데 지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 판관비가 다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 그럼 지출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나?
- 아직 미완성된 예산이다. 11월에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겠다.

<서안성운영위원회>

- 120쪽에 조합원 확대 부분에 2020년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으로 수정해 달라.

[결정사항] 위원회별 수정사항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2020년도 가결산 보고의 건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20년도 9월까지 결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도 가결산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2020년도 가결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2020년도 가결산 안을 참고.

[논의사항]

-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현재 나가고 있는 임대료와 이자 비용을 비교하면 비슷하다.
- 이전에 이사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다음 이사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 유지, 관리 보수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9층을 짓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1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2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감안이 되었다고 보실 수밖에 없다. 설계할 때, 전문가와 의료진, 직원들, 조합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최적의 공간 활용을 위해 논의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4호 의안] 농민한의원 진료시간 변경의 건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현재 7시까지 진료하고 있는 농민한의원의 진료시간을 6시 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농민한의원 진료시간 변경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안배경

-2018년 12월 이후로 농민의원 진료시간 18:30으로 조정.
 -18:00 이후 접수 환자의 감소 (일평균 2018년 1.3명, 2019년 1.0명, 2020년 0.7명)
 -접수마감 시간은 현행 18:00로 유지하면서 진료마감 시간을 앞당겨 압축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상됨.

○ 안성농민한의원 최근 3개년 시간대별 일 평균 환자수

	5:30~5:45	5:45~6:00	6:00 이후
2018-01	0.6	0.9	1.0

2018-02	0.8	0.7	0.8
2018-03	1.3	1.3	1.7
2018-04	1.3	1.0	1.2
2018-05	1.1	1.4	1.6
2018-06	1.3	1.6	1.8
2018-07	1.3	1.3	1.0
2018-08	1.5	1.1	1.2
2018-09	1.4	1.2	0.9
2018-10	1.3	1.8	0.9
2018-11	1.1	0.9	0.8
2018-12	1.1	0.6	0.7
2019-01	1.1	0.6	0.5
2019-02	1.5	1.1	0.9
2019-03	1.3	1.8	0.9
2019-04	1.2	1.2	1.2
2019-05	1.6	1.3	0.8
2019-06	1.8	1.3	0.9
2019-07	1.6	1.6	2.0
2019-08	1.0	1.3	1.0
2019-09	0.7	1.1	0.7
2019-10	0.7	0.8	0.7
2019-11	0.8	0.6	0.5
2019-12	0.8	0.4	0.8
2020-01	1.5	1.2	0.8
2020-02	1.2	0.9	0.6
2020-03	0.9	0.8	0.7
2020-04	1.5	1.0	0.8
2020-05	1.0	1.8	0.6
2020-06	0.9	0.9	0.8
2020-07	1.4	1.6	0.8
2020-08	0.9	1.2	0.8
2020-09	0.9	1.2	0.5

	5:30~5:45	5:45~6:00	6:00~
2018년 평균	1.2	1.2	1.2
2019년 평균	1.2	1.1	0.9
2020년 평균	1.1	1.2	0.7

○ 농민한의원 손익

과목	농민한의원	비고
Ⅰ. 매출액 (평균, 1시간 매출)	369,600	일일 평균 0.7인 * 22일
[직원급여]월급여	1,111,154	의사1인+업무보조2인+접수1인 *22일
퇴직급여	92,596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50,001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40,840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11,650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미비한 지출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지급수수]기장료		미비한 지출
[지급수수]기타수수		
V. 영업손익	-936,641	

[논의사항]

- 경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방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와야 하는데 5시 30분에 마감을 한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7시에 마감을 하면 6시 이전까지 오시게끔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6시 1분이나 그전에 전화해서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6시 이전까지 오셔야 한다고 못을 박고 6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뭐랄까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오게 주의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써야 하는 상황인데도 못 오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6시 이전에 안성시민들이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분들에게 6시 이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합을 만든 것이지 그 능력 있고 돈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합을 맡긴 것이 아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우리가 힘드니까 수입이 적다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어디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5시까지 미리 전화나 오게끔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6시 이후에는 아예 환자들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쉽게 말해서 6시 30분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시까지의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 직장인들은 절대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다.
- 7시에 마감을 한다고 해도 5시 30분까지 와야 한다고 거의 이야기를 한다. 신지현 이사님 말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 경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지현 이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경영위원회에서 하셨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접수 마감을 5시 30분이 아니라 6시에 마감할 것이고 6시 이후에 오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잘 설명을 하고 최대한 침 치료는 될 수 있도록 전부 하도록 하겠다고 농민한의원 원장님께서 그것을 조건이라면 조건으로 말씀하셔서 경영위원회 위원 분들이 전부 합의를 해주셔서 승인이 난 것이다. 가능하면 농민한의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시간을 내서 온 것인데 이왕이면 다 받고 가고 싶지 않 치료받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과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마감 시간이 변경돼서 짧아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환자가 느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손님을 대하는 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대우를 갖춰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촉박해지는 불편함이 클 것 같다.
- 그 이야기도 경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원장님께서 환자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 이사회에서만큼은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되면 일반병원과 다를 것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이 병원비가 확실히 저렴하다거나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일반 조합원들은 잘 모른다. 이용위원회의 목표가 다시 찾고 싶은 의료기관인데 이래서는 다시 찾고 싶지 않다. 저라도, 이사회에서 이번 안건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상대성이 있으니까 다른 한의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나?
- 다 다르기는 할 텐데 조사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 상대성이 있으니 사전조사를 해서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것을 지금 동절기만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절기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지 해가 길어지면 사실 6시 30분이면 해가 길어지니 시골에서도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건으로 올려야지 조사도 없이 안건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 같다.
- 타 병원과 비교를 하는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지현 이사님 말씀대로 서민층을 겨냥해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비교해서 조건부 시한을 하되 하는 중에 불미스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양방과 한방의 퇴근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안건이 나온 것 같다.
- 그 이유는 아니다. 예전에 양방이 줄일 때 한방도 함께 줄이려고 했었는데 한의원이 스스로 7시까지 한다고 했었고 한의원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다.
- 한의원에 6시 이후에 오는 환자들이 줄어서 이런 안건이 나온 것 같다. 타 병원도 알아보고 다시 심사숙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양방 시간을 줄였을 때도 나왔었지만 타 병원들의 진료시간은 제각각이고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의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하나는 다른 병원에서는 7시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6시 30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진짜 꼭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쪽에 수용이

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힘들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 늦게 오시는 분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제 의견은 침은 매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가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일은 7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6시 30분까지 진료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 늦게 오는 환자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약을 늦게 잡아줄 리는 없고 환자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병원에 갔을 때 기분이 나빴으면 다시 그 병원에 가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거절당한 환자들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정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타 병원과의 비교를 해봐서 우리가 다른 병원보다 더 늦게는 아니라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교를 먼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원장님들보다는 직원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 퇴근 시간이 임박해 접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직원들은 정리할 것도 많은데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대부분 의견이 상대성이 있으니 다른 병원의 진료시간을 파악해보고 동절기에만 일시적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해서 다음 달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 동의한다.
- 한시적으로 할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다른 한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보겠다.
- 봄에 6시 30분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일도 8시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한 번에 생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정사항] ①타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비교분석 ②동절기, 하절기 시간 분류 ③늦게 오는 환자 유형 파악 / 위 3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 후 11월에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5호 의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2020년도 추경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검토 후 추경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바랍니다.

○ 별도의 추경예산안을 참고.

[논의사항]

- 항상 주민이 50여 가구가 되었던 것 같은데 배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복지부에서 만 명 늘리는 것으로 전국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러니하게 참여 주민 수는 늘어났는데 근로 능력자는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이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줄어드는 것 같다. 100여 명이 항상 유지되고 있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6호 의안]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묶음지불)모델 시범사업 진행 승인의 건

▶ 제안설명 : 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사협에 적합한 보험급여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범사업의 개요를 검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묶음지불)모델 시범사업

▶ 사업기간 : (예상) 2021년부터 3개년 정도.

▶ 사업대상 : ①안성의료사협의 전 조합원 혹은 ②주요활동가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5,000여 명.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평가,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구조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음. 지금의 구조를 벗어난 외국의 포괄수가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검토하고 있는 여러 포괄수가제도 중의 하나로 의료사협형(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이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음.

- 추진근거 : 우리 안성의료사협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룹의 총진료비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교 그룹의 총진료비를 비교해 보니 우리 안성의료사협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룹의 진료비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환자정보에 근거하여 연구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료기관을 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들의 총진료비로 대략 비교한 결과임. 안성의료사협의 대상을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정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짐.

- 추진계획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연구설계부터 시작, 어떤 통제시스템으로 어떤 성과물관리를 할 것인지는 심평원의 연구팀과 논의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 즈음에 (우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그룹과 비교 그룹을 비교 분석한)1차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진예산 : 350,000,000원(70,000원 * 5,000명) + 60,000,000원(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 240,000,000원(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 총 650,000,000원.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었으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함.

▶ 감안사항 : 연구에 참여하는 5,000명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논의사항]

- 우리가 모델이 되어서 하나의 의료수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확장이 될 것이다.
- 찬성, 반대의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이 있다. 그런 활동들을 모델 삼아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손해 볼 것이 없는 것 같다. 사업비도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 개인정보 동의서 받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도 원장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해보자는 의견이었다. 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동의한다.
- 심평원에서 우리 조합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 좋은 방안이 나오고 제시가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찬성한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기타사항]

- 적자가 나면 조합원들의 사업이나 직원들 복지를 삭감하는 것 같다. 직원들이 장기근속하는 방법은 급여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조합원 특화사업 비용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적자가 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